

제23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2020. 5. 18.(월) 11:00

시정질문 답변자료



구 미 시

시 정 질 문 요 지

질문 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자	비고
이선우	1. 구미시가 매년 문화예술분야에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 시민이 체감하는 정도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시 장 (문화체육관광국장)	
	2. 구미시의 문화예술정책은 일부 특정 단체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미시의 대책은?	"	
	3. 구미시립예술단 관리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내역과 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작품 저작권 보호 등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문화예술회관장	
	4. 공적영역 문화예술의 대표기관으로서 문화예술회관의 역할과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	
	5. 앞으로 구미시 문화예술이 나아갈 방향은?	시 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질문	1. 구미시가 매년 문화예술분야에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 시민이 체감하는 정도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	--

□ 평소 지역 및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선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는 경제, 복지 등 다른 분야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경험이 축적되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민선7기 출범 후

예술이 일상이 되는 문화도시 실현에 역점을 두고 금년 기준으로 시 전체 예산대비 1.7%인 206억원을 문화예술 분야에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타 지자체 문화 선도도시(ex 부천)의 경우 전체예산의 3% 이상을 문화예술 분야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의 문화예술분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앞으로

시민이 원하는 문화시설 확충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시민중심의 문화프로그램 개발,
각계 각층의 의견을 반영한 주민주도형 축제 개발 등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예술의 즐거움을 체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2. 구미시의 문화예술정책은 일부 특정 단체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미시의 대책은?

- 우리시는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15조,
문화예술 진흥법 제39조에 의거하여,
문화원과 구미예총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20년도 구미시의 주요 문화예술분야
주요 사업 현황을 보면,

문화예술행사 관련 사업비 41억여원 중

- ▶ 구미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단체로,
총 12개 사업 및 운영지원에 2억 4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 ▶ 구미예총의 경우
예총지회 총 4개 사업에 1억 6천,
산하 8개 지부에 총 9개 사업, 2억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생활예술단체 총 48개 단체에는 총 7억 6천만원 등으로,

- 국악, 무용, 미술, 사진, 연극, 음악 등 전문예술단체와 다양한 생활예술단체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매년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 일몰제 및 성과평가, 정산검사 등을 강화해나가고, 성과평가결과는 다음연도 사업선정에 적극 반영하여 문화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버스킹, 행위예술 등 거리예술가 활성화사업은 물론 시민들의 창의적이고 건전한 문화 활동사업이 권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등으로 다함께 누리는 감성 문화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3. 구미시립예술단 관리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과 시립무용단 정기 공연 작품 저작권 보호 등에 대한 향후 대책은? (관장)
----	--

□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는 이선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무용단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이 제기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문화예술회관과 시립예술단의 발전적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개선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예술단원 처우개선 관련입니다.

- 행정사무감사 이후 노사 상호간 신뢰와 이해로 단원 등의 처우개선 방안을 협의하였고, 2019. 10. 18일자로 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그 내용으로는, 금년부터 연습수당의 경우 전년대비 월 30만원을 인상하였고, 공연수당 역시 회당 3만원을 인상함으로써 예술단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올해부터 명절휴가비로 연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단원 복지가 실질적으로 대폭 상향조정되었습니다.

※ 소요예산 : 총 1,584백만원(증479백만원/43.3%)
 - 공연수당 인상 : 71백만원(증35백만원/49.4%)
 - 직책(연습)수당 인상 : 1,418백만원(증349백만원/32.7%)
 - 명절휴가비(신설) : 95백만원

- 이와 더불어 소년소녀합창단을 제외한 예술단의 연습시간을 주2회 6시간에서 주3회 9시간으로 연장함으로써 예술단의 수준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단원의 복지와 의무감의 형평성을 맞추었습니다.
- 앞으로도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하여 복무규정, 평정방법 등의 환경개선을 위해 예술단 노조와 대화를 지속해 갈 것이며, 이를 통해 발전적 의미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용단의 의상관리 등 물품의 무단 반출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 공연 물품이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무단 반출이 되지 않도록 외부 반출대장을 만들었고, 관리 부서의 허가를 득한 후 반출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출된 공연물품은 반드시 오염물질 제거와 의상의 경우 세탁 후 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시립예술단에 의해 제작되는 대·소도구는 관련 부서를 통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립무용단의 동일 작품 반복 공연 관련입니다.

- 무용단 정기공연으로 진행되었던 작품이 경우에 따라 차기 정기공연에서 가공되어 재사용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예술단 발전에도 긍정적이지 않다는 판단 하에, 향후 시립예술단 활동에 있어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호응도가 특히 높았던 작품을 선별하여 특별공연 혹은 앵콜공연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권장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사용된 우수한 작품이 1회성 공연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무용단을 통해 생점화 되고 있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각 시·도립 무용단에 의해 발표되고 있는 작품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시·도립 무용단의 경우, 자체에서 생산되고 발표된 작품이라 할지라도 안무자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경우 외부단체에 의한 동일 작품의 공연에 대하여 문제를 삼지 않고 있습니다.

- 이는 기초예술의 발전을 위한 측면에서도 그렇고, 무엇보다 시·도립 무용단에 의해 창작된 작품을 외부 무용단이 독자적으로 공연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번 우리 시립무용단의 경우처럼 법적인 판단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각각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지난해 쟁점화 된 우리 시립무용단 작품과 관련하여, 앞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인식이 아닌, 문화예술회관장의 입장에서 저작권의 소유권에 대하여 말씀드리다면,
- 우선 안무자의 경우, 시립무용단 안무자 공채에 응시할 당시 보수를 비롯한 근무환경 등 기본 조건을 인지하고 응시하였으며, 더불어 구미시가 무용작품의 안무구성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안무자에게 일임한다는 전제로 채용되었습니다.
- 또한 시립무용단에 의해 발표되는 작품의 제작예산, 즉, 의상을 비롯한 무대 대·소도구, 음악작곡을 비롯한 모든 공연관련 예산을 구미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연간 1억여원)
- 다만, 비상임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기본 보수가 상임체제인 다른 시·도립 무용단과 비교할 경우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작품들은 구미시 즉, 법인의 명의로 공표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상 저작권은 구미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관장으로서의 의견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판단이 진행될 경우 제반 여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일방에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향후 시립예술단체에 의해 발표되는 창작품의 경우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것이며,
- 고용노동법에 근거하여 단위별 근로계약서 작성이 요구된바, 안무자 이하 단위과의 계약서에 이를 분명히 명시하여 이와 같은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4. 공적영역 문화예술의 대표기관으로서 문화예술회관의 역할과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관장)
----	--

- 구미문화예술회관은 공연 및 전시예술을 통해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즐기면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적인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구미시가 문화예술의 산실로서 타 도시와의 보이지 않는 경쟁을 통해 시민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 주는 역할이 본연의 임무일 것입니다.
- 따라서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시민의 예술 향유 다양성을 제공할 것이며, 구미시만의 예술행정의 틀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예술에 대한 인식적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이 모든 것은 문화예술회관, 시립예술단체와 함께 존경하는 모든 시의원님의 전폭적인 협조를 필요로 하며, 이를 통해 큰 자긍심으로 우리 지역의 예술 환경이 변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명확한 운영기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이상, 이선우 의원님이 질의하신 두 개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5. 앞으로 구미시 문화예술이 나아갈 방향은?
----	---------------------------

- 문화예술행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지자체에서는 문화재단 등의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 물론 지역문화재단들이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과 어려움을 다소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역의 문화예술 현장과 꾸준히 소통하는 구심점으로서 지역문화예술인들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 앞으로는 지방분권, 문화분권 등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다양한 국책사업을 추진함에도 문화재단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문화예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전에 시의회는 물론 문화예술 전문가, 지역 문화예술계의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할 것입니다.

- 또한 전통문화도 보존· 계승하면서
영상미디어 문화의 활성화 등 시대의 흐름에 맞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추진 전략도 수립할 것이며

시민이 문화 활동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설립을 통해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는
스마트 감성도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